

18世紀 後半의 國語學과 鄭東愈의 『晝永編』

金 亮 鎮*

- | | |
|------------------------|--------------------------|
| I. 머리말 | III. 『晝永編』에 나타난 國語學史的 意義 |
| II. 少論 系列의 學問的 傾向과 鄭東愈 | IV. 결론 |

• 국문초록

이 研究는 18世紀 後半의 學者, 鄭東愈의 『晝永編』(1805~1806)에 나타난 國語學의 研究 成果를 主觀主義의 心學 傳統의 陽明學派, 즉 朝鮮 後期의 少論 學派와 관련지어 살펴본 것이다. 鄭東愈의 학문적 傾向에는 당시로서는 劃期的이라 할 수 있는 ‘自國主義’의 傾向이 짙게 깔려 있으며 이는 少論 系列의 전체적인 傾向性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中國 漢字音 즉 華音과 東國 漢字音 즉 東音を 구별하여 인식하려는 傾向이 두드러지게 되고 鄭東愈와 같이 東音의 표기 체계인 ‘訓民正音’을 중심으로 普遍的 言語 體系를 再構하려는 입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鄭東愈는 『晝永編』(下)에서 文字 體系로서의 ‘訓民正音’에 대해 創意的인 解釋을 提示하고 있다. 鄭東愈는 世宗이 만든 ‘訓民正音’이 순수하게 聲音(인간 언어의 자연 발화)에 입각하여 만든 보편적인 문자 체계라고 보고, 訓民正音이 조선 시대에 中國式 漢字音 表記에 주로 사용하게 된 이유를 申叔舟의 『四聲通考』에서 根據한 것으로 보았다. 鄭東愈는 이와 관련하여 申叔舟의 『四聲通考』에 앞서 세종의 ‘四聲通考’가 별도의 지침으로 존재했을 것임을 추론하였는데, 이러한 추론은 訓民正音 창제 당시의 표기 원리와 『四聲通考』 출간 이후의 표기 원리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

鄭東愈는 齒頭音과 正齒音의 구별 역시 申叔舟(정확히는 『四聲通攷』)에 근거

* 高麗大 民族文化研究院 研究教授.

한 것임을 世宗이 주도한 『訓民正音』이나 『東國正韻』 등 초기 正音 관련 글에는 이러한 구별이 없었던 데에서 찾았다. 齒頭音과 正齒音의 歸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東音을 중심에 두고 普遍的 聲音의 體系를 설정하고자 한 세종의 ‘訓民正音’을 높게 평가하고 華音 중심의 보편적 문자 체계를 설정하고자 하던 당시의 논의를 申叔舟로부터 기인한 잘못으로 평가하려는 鄭東愈의 태도와 관련한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少論을 중심으로 형성된 양명학적 입장에서의 자국주의, 혹은 주관주의적 가치관과 관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鄭東愈는 『晝永編』(1805~1806)에서 이러한 주관주의적 가치관의 연속선상에서 18世紀 後半 朝鮮語의 다양한 언어 현상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책에는 語彙史的으로 중요한 우리말의 여러 가지 어형이 설명되어 있다. 본고는 그 중에서도 [환:갑]으로 발음되는 한자어 ‘還甲’의 語彙史, 중국어의 ‘打’의 용법과 우리말 ‘치다’의 다양한 용법을 상관짓는 논의, 그 밖에 地名에서 찾아낸 ‘*눅다[悲感], *자리[柴]’ 등의 어휘소 관련 논의, ‘辛夷, 颶風’ 등의 어휘적 오류에 대한 지적 등에서 『晝永編』의 語彙史的 意義를 재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 주제어

鄭東愈의 『晝永編』, 少論 學派와 陽明學, 訓民正音, 四聲通考, 齒頭音과 正齒音, 語彙史

I. 머리말

國語學界에서, 玄同 鄭東愈는 柳僖 『諺文誌』의 “또 鄭丈께 들었는데, 그분의 고조부 형제 중에 知和라는 이름과 至和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당시까지는 혼동되지 않았다. ‘디’와 ‘지’의 혼란은 그다지 멀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는 일이다.”¹⁾라는 句節에서 國語의 口蓋音化가 18세기 초반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기록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의 학자로서 鄭東愈가 갖는 國語學史的 意義는 鄭東愈가 긴 여름날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기록한 『晝永編』(1805~1806)²⁾에 담긴 다양한 통찰력 있는 國語學的 논의들에서 비롯한다.

鄭寅普가 『晝永編』에 대해 “正音考究로 말하면 그 중에서 더 깊이 第二卷 一項으로부터 十二項까지의 體系整然한 論述이 곧 近古 正音學의 淵源을 濬道하였다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柳僖 『諺文誌』 곧 이를 祖述한 것이다.”³⁾라고 언급한 이후, 鄭東愈의 『晝永編』에 담긴 國語學的 進술들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⁴⁾ 그러나 權在先⁵⁾과 양정

1) 『諺文誌』(1820), “又聞鄭丈言 其高祖昆弟 一名知和 一名至和 當時未嘗疑乎 可見디지之混 未是久遠也.” 여기서 鄭丈은 柳僖의 사부였던 鄭東愈를 가리키는 말이다.

2) 『晝永編』(上)은 1805년 여름에, 『晝永編』(下)는 1806년 여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편의상 『晝永編』으로 통칭한다.

3) 鄭寅普, 『舊園國學散藁』, 文教社, 1955; 『舊園文錄』, 연세대 출판부, 1967/1983; 정양완 역, 『舊園文錄』 上中下, 태학사, 2006. 『晝永編』에서도 “先生에 이르러 더욱 專一하게 研究하여 이 編을 지음에, 正音を 밝혀낸 것이 무릇 아홉 條項인데, 柳西陂의 諺文誌는 여기서 나온 것이다.”와 같은 지적이 남겨져 있다.

4) 劉昌均·姜信沆, 김민수, 姜信沆, 김석득, 權在先 등의 각종 국어학사 개론서들에서 鄭東愈 『晝永編』에 담긴 국어학적 논의 중 일부를 소개한 바 있고, 도수희, 김일, 양정호 등은 鄭東愈 『晝永編』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근 김동준은 『玄同室遺稿』와 『晝永編』의 내용들을 바탕에 두고, 소론계 학자들의 어문 연구가 학문적으로 일정한 계보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鄭東愈와 尹光洙, 鄭東愈와 이의봉의 상관관계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鄭東愈의 국어학사적 의의를 살펴본 바 있다. 鄭東愈의 가계와 『晝永編』의 사상사적 측면의 가치에 대해서는 조성산이 자세히 다룬 바 있다. 劉昌均·姜信沆 共著, 『國語學史』, 민중서관, 1961(제8판 1974); 金敏洙, 『新國語學史』(1980초판), 一潮閣, 1994; 姜信沆, 『국어학사』, 보성문화사, 1983; 김석득, 『우리말연구사』, 정음문화사, 1983;

호⁶⁾, 김동준⁷⁾의 논의를 제외하면 『晝永編』에 담긴 鄭東愈의 국어학적 논의들은 대개 翻譯과 註釋에 그친 측면이 있어서 그 논의들에 담긴 國語學史的意義나 當代의 社會思想的 論議들이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국어학사에서 鄭東愈의 『晝永編』에 대해 언급해온 논의들을 집대성하고 『晝永編』에서 鄭東愈가 말하고자 했던 國語史 혹은 國語學史的 논의들의 실체를 좀더 學文間的 연속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⁸⁾

II. 少論 系列의 學問的 傾向과 鄭東愈

鄭東愈 『晝永編』에 담긴 國語學的 논의들에 앞서 鄭東愈 시대의 學問的 傾向과 鄭東愈의 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鄭寅普의 글들을 따로 모아 出刊한 『舊園文錄』⁹⁾에서 鄭東愈 시대의 朝鮮 後期 儒學者들의 學問的 系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舊園文錄』(中) 「旅菴全書總序」¹⁰⁾와 『舊園文錄』(下) 「石泉遺稿記」¹¹⁾의 내용 속에 이러한

權在先, 『국어학 발전사(고전국어편)』, 우골담, 1988, 도수희, 「정동유의 언어관」, 『춘강 유재영박사화갑기념논총』, 이희문화사, 1992; 「정동유의 어휘·어원론」, 『語文研究』 24, 어문연구학회, 1993, 김일, 「《주영편》을 통해 본 정동유의 언어관」, 『중국조선어문』,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2003; 양정호, 「주영편의 국어학사적 기술」, 『애산학보』 30, 애산학회, 2004; 김동준, 「소론계 학자들의 자국어문 연구활동과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35, 민족문학사학회, 2007; 조성산, 「玄同 鄭東愈(1744~1808)와 『晝永篇』에 관한 연구」, 『韓國人物史研究』 3, 한국인물사연구소, 2005 참조.

5) 권재선, 앞의 1988 책.

6) 양정호, 앞의 2004 논문.

7) 김동준, 앞의 2007 논문.

8) 鄭東愈는 英·正祖期 改革 勢力의 한 축을 형성했던 陽明學의 基盤의 少論系 學者이다. 따라서 家學이나 黨派의 傾向이 강했던 朝鮮 後期 學文의 傾向을 念頭에 둘 때, 鄭東愈의 이러한 國語學的의 주장을 少論이라는 학문적 계열의 학자들과의 상관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少論 系列에 속한 많은 학자들의 著作에서 우리는 訓民正音이나 우리말에 대한 깊은 관심의 결과가 확인된다.

9) 鄭寅普, 『舊園文錄』, 연세대 출판부, 1967; 정양완 역, 『舊園文錄』 上中下, 태학사, 2006.

내용이 다루어져 있는데, 이 두 글의 내용을 적절히 折衷하여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후기 유학자들에는 세 가지 계열의 계보가 있다.

첫째는, 谿谷 張維, 遲川 崔鳴吉로부터 霞谷 鄭齊斗에 이어졌다가 恒齋 李匡臣, 金澤秀, 李震炳이나, 員嶠 李匡師, 信齋 令翊父子, 椒園 李忠翊과 玄同 鄭東愈를 거쳐 西陂 柳僖, 그 밖에 藜室 李肯翊, 石泉 申綽 등도 이에 포함.

둘째, 潛谷 金堉으로부터 아들 佐明, 佑明, 손자 錫胄, 제자 丹巖 閔鎮遠, 疎齋 李頤命 등, 遲川의 손자 鳴谷 錫鼎도 이 범주에 든다.

셋째, 磻溪 柳馨遠을 거쳐서, 李星湖(瀾), 鄭農圃(尙驥)가 이를 뒤이었다. 星湖는 한 집안 자손들이 대개 경세지재로 茶山(丁若鏞)이 私淑한 바요, 제자 대여섯 분¹²⁾이 모두 실사구시의 석학으로 천문, 수학, 역사, 지리에 밝았고, 동서양의 장점을 아우르고자 하였다. 農圃의 縮尺으로 그린 지도는 前사람에게는 없던 바로, 아들 兼齋 恒齡에게 전수되었다. 旅庵은 兼齋의 벗이며 게다가 星湖를 어렵게 여기며 섬겼던 터였다.

첫 번째 系譜에 속하는 學者群은 대부분 陽明學派, 소위 少論系에 속하며 주로 訓民正音에 대해 言語學的 觀心을 높이 보이는 系統으로 鄭東愈는 이 系列에 속하는 學者로 언급되었다. 두 번째 系譜에 속하는 學者群은 주로 老論系 朱子學派 系統의 인물들이나 老論 중에서도 少論 系統에 友好的이었던 學者群이다. 疏齋 李頤命이나 明谷 崔錫鼎 등은 정치적으로는 노론 계열에 속했지만 학문적으로는 少論 系列의 학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문인들이다. 세 번째 계보에 속하는 학자군은 흔히 남인으로 분류되는 학자군으로서 조선 후기의 정치 지평에서 성리학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였으면서도 서학을 받아들임으로써 몰락하게 되는 비운의 그룹이다. 특히 소북 계열의 旅庵 申景濬이 少論 系列의 洪良浩와의 친분 이외에도 남인 그룹에 속하는 겸재

10) 정양완 역, 앞의 2006 책, 237~256면.

11) 정양완 역, 앞의 2006 책, 283~291면.

12) 星湖 李瀾의弟子, 尹東奎(1695~1773, 『사수번』), 安鼎福(1712~1791, 『동사강목』·『순암집』), 愼後冊(1702~1761, 『하빈집』), 權哲身(1736~1801, 천주교 순교자) 등. 『詹園文錄』에서는 “安鼎福은 歷史에, 愼後冊은 禮學에, 黃運大는 曆算에, 尹東奎는 地理에 모두 거룩진 큰 선비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항녕의 벗이었으며 성호 이익을 깊이 사숙하였음은 18세기 말, 旅庵 申景濬을 중심에 둔 학적 교류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鄭寅普의 『舊園文錄』에 담긴 위의 系譜를 확인하다 보면 意圖的 인지는 모르겠으나 老論 辟派 系列의 學者群(송시열, 김창집, 김창협, 김창흠, 김상로, 홍계희, 심환지 등)이 대거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老論이라 하더라도 少論 系列과 친분이 있는 金堉의 後孫이나 崔錫鼎, 李頤命 등이 포함된 것을 놓고 보면 이러한 분류에는 분명 鄭寅普의 學問的 偏向이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舊園國學散考』에 “朝鮮은 晦菴學派뿐이다. 여러 百年동안 누구를 물을 것 없이 그 學을 받아들여야만 進身, 取名의 길을 얻을 수가 있었나니, 全部인지라 따로 晦菴學派라는 이름까지도 없었다.”¹³⁾ 라고 한 것을 보면 위의 분류에서 老論 辟派의 學者群이 누락된 데는 爲堂의 의도적 배제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어쨌든 鄭寅普의 이러한 지적과 같이 조선 후기의 지식 지평에는 위와 같은 분류에 걸맞는 학문적 계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그룹인 조선 후기 陽明學 系列의 學派에 대해서, 爲堂은 『舊園國學散考』 「陽明學續論」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계파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 第一流 : 遲川 崔鳴吉, 谿谷 張維, 霞谷 鄭齊斗
- 第二流 : 員嶠 李匡師, 信齋 李令翊, 椒園 李忠翊
- 第三流 : 湛軒 洪大容

鄭寅普는 이 가운데 제일류의 집대성자라고 할 수 있는 霞谷 鄭齊斗의 다양한 학문적 경향 중 “數學的 成果는 아들인 鄭厚一과 外孫인 申綽 등이 이어 받았고, 聲音文字의 學은 員嶠 李匡師, 信齋 李令翊, 椒園 李忠翊과 玄同 鄭東愈를 거쳐 柳西陂(僖)에 와서 特著를 내이게 되었음”을 언급하면서 鄭東愈와 柳僖가 흔히 江華學派로 일컫는 이광사 계열의 학문적 경향에 닿아 있는 것으로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다.

『舊園國學散藁』의 系譜說을 정리해 보면, ‘지천, 계곡, 하곡’을 거쳐서 ‘정

13) 정인보, 『舊園國學散考』, 文教社, 1955, 261면.

후일, 신작'으로 이어지는 계열이 陽明學 계열의 주류 계열 혹은 제일류 계열이고, 제일류의 계열 가운데서 하곡 鄭齊斗의 聲音文字의 學을 이어받은 그룹이 제이류로 이 안에 鄭東愈와 柳僖의 논저들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舊園國學散藁』에서는 이들과 무관하게 제삼류를 이루는 학자로 湛軒 洪大容을 들고 있다. 湛軒 洪大容이 비록 陽明學 계열의 학자군에 포함될 만 하지만 노론 계통을 이루는 학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舊園國學散藁』에서도 湛軒의 '利用厚生學'을 일반적인 少論 系列의 논의와 상관은 있으나 독자적인 별개의 노선인 것으로 평가한 듯하다.

『舊園國學散藁』의 이러한 분류는 劉昌均·姜信沆¹⁴⁾ 이후, 國語學史에 오랫동안 借用되어 왔다. 그후 劉昌均은 조선 후기 訓民正音 연구와 관련한 학문의 경향을 크게 陽明學 계열의 연구와 실학 계열의 연구 결과로 나누어 설명하여¹⁵⁾ 『舊園國學散藁』에서 일보 진전된 논의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劉昌均 역시, 訓民正音과 관련하여 실학 계열의 연구 결과가 간략히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논의는 주로 陽明學 계열의 연구자들의 논의에 주목하고 있고, 陽明學 계열의 연구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舊園國學散藁』의 논의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김완진·정광·장소원¹⁶⁾은 『舊園國學散藁』의 견해를 참고하여, 조선 중기 이후의 실학사상이 조선학을 발달시켰으며 이 朝鮮學이 첫째, 南人 系統(이익·유형원·정약용·안정복·정상기 등), 둘째, 老論 系統(李頤命·김만중·홍대용·김육·박지원·申景濬¹⁷⁾ 등), 셋째, 少論 系統(최명길·장

14) 劉昌均·姜信沆, 앞의 1961 책.

15) 劉昌均, 『新考國語學史』, 형설출판사, 1983.

16) 김완진·정광·장소원, 『國語學史』,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9.

17) 김완진·정광·장소원은 旅庵 申景濬을 노론 계통으로 분류하였으나(앞의 1999 책), 이는 정확한 분류라고 보기 어렵다. 旅庵은 엄밀히 말하면 小北 계열의 학자였고 당시 少論이었던 耳谿 洪良浩에 의해 발탁되어 조정에 입문하였다. 旅庵 申景濬은 후에 지리학에 대한 실력을 인정받아 노론의 영수인 홍봉한의 추천으로 『동국문헌비고』의 편찬에 참여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론 세력과 지속적인 학문적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申景濬의 언어 이론이, 少論 系列의 鄭齊斗나 비록 老論이었지만 少論 系列과 친분이 두터웠던 崔錫鼎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또 少論 系列인 柳僖, 박경가 등에게 답습된 사실 등을 놓고 볼 때, 申景濬의 학문적 경향은 노론보다는 少論쪽에 가까웠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사색 당파가 엄연한 당시 현실에서 소북 계열의 旅庵 申景濬과 少論

유·崔錫鼎·鄭東愈·이궁익·柳禧 등)의 세 유파에 의해 전개되었다고 보았는데 이 견해에 와서 ‘陽明學的 傳統’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부터 ‘少論系統’이라는 좀더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용어가 사용되었다.

『詹園國學散藁』가 ‘朝鮮學’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머물러 구체적인 학풍 간의 차이를 언급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조선 후기 實學者들의 학문적 연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면, 김완진·정광·장소원의 논의는 국어학 분야에서 少論系統의 학자들을 최초로 부각시키려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후, 김동준¹⁸⁾과 김양진¹⁹⁾에서도 少論學派를 부각시키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鄭東愈를 이 그룹에 포함하여 논의한 바 있다.

김동준은 조선 후기 학문적 흐름에 陽明學 계열의 少論學派가 존재함을 지적한 뒤, 이들 少論學派를 먼저 인적 교류 관계에 따라 (1) ‘남구만-최석정-정제두’의 권역, (2) ‘홍양호-신경준’의 권역 (3) ‘정동유-윤광수-이의봉’의 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어서 계승맥락에 따라 첫째, ‘정제두-이광사-이영익-이충익’의 축, 둘째, ‘남구만-남극명-남극관’ 삼대의 축, 셋째, ‘최석정-홍양호-홍희준’의 축, 넷째, ‘정동유-유희-정운용-강위’의 계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²⁰⁾

김양진은 ‘崔錫鼎-洪良浩/申景濬-洪羲俊’으로 이어지는 國語學的 系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어학 분야에서의 少論學派의 成立을 주장하였다.²¹⁾ 이 논문에서는 少論系列 학문의 연속성을 明谷 崔錫鼎(1646~

系列의 이계 洪良浩의 지속적인 교유가 가능했던 사실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明少論崔錫鼎 역시 정치적으로는 노론 계통의 실세였지만 학문적인 경향은 소론 계열의 학자들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소론에 가까운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의 훈민정음과 관련한 학문적 계보에서 旅庵과 明谷을 모두 소론 계열에 포함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18) 김동준, 앞의 2007 책.

19) 김양진, 「薰谷 洪羲俊의 「諺書訓義說」에 대하여」, 『어문논집』 52, 민족어문학회, 2008b.

20) 김동준, 앞의 2007 책.

21) 김양진은 薰谷 洪羲俊의 언어관과 문자관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것이 “薰谷 자신만의 독단적인 견해라기보다는 당시 少論系統으로 알려진 …… 일련의 학통적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심육과 심악을 매개로 하여, 멀리 谿谷 張維, 遲川 崔鳴吉(1586~1647)로부터 연원을 두고 藥泉 南九萬(1629~1711), 明齋 尹拯(1629~1714), 南溪 朴世

1715)²²⁾, 河谷 鄭齊斗(1649~1736), 夢巖 南克寬(1689~1714)²³⁾ 등으로부터 耳鷄 洪良浩(1724~1802)와 旅庵 申景濬(1712~1781)²⁴⁾, 李思質(1705~1776)-李奎象(1727~1799) 父子, 李匡師(1705~1791)-李肯翊(1736~1806) 父子, 玄同 鄭東愈(1744~1808) 등으로 이어졌다가 薰谷 洪羲俊(1761~1841), 柳僖(1773~1837), 朴慶家(1779~1841) 등을 거쳐 『字類註釋』(1856)을 편찬한 정운용(1792~1865), 『광견잡록』에서 ‘一劃象形說’을 주장한 盧正燮(1849~1902)이나 『正音宗訓』(1906), 『音經』(1916) 등을 편찬한 權靖善(1848~?) 등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특히 이 무렵 少論系 學派의 학문적 관심은 우리 語文, 특히 訓民正音의 研究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一貫되어 있었는데²⁵⁾ 본고에서는 그 이유를

采(1631~1695) 등으로부터 崔錫鼎, 정제두를 거쳐 申景濬(1712~1781), 이광사(1705~1777), 이사질(1705~1706) 등으로 이어지는 陽明學의 전통에 기반을 둔 심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薰谷 洪羲俊의 「諺書訓義說」에 대하여」, 『어문논집』 52, 민족어문학회, 2008b).

22) 明谷 崔錫鼎의 『經世正韻圖說』(1678)의 국어학적 검토는 김성규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김성규, 「최석정의 경세정운도설 I」, 『문헌과 해석』 1, 태학사, 1997, 132~140면; 「최석정의 경세정운도설 II」, 『문헌과 해석』 2, 태학사, 1998, 84~94면.

23) 몽에 남극관의 국어학적 논의에 대해서는 정우택, 「夢巖集의 국어학사상의 의의」, 『애산학보』 16, 애산학회, 1995에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24) 旅庵 申景濬은 『韻解』의 초성해에서 “象脣舌”이라 하여 발음기관 상형설을 주장하였는데, 旅庵의 이러한 주장은 적어도 訓民正音의 ‘象形’을 발음기관의 상형에 연결하려는 인식에 관한 한, 訓民正音의 창제 정신에 상당히 가까운 것이어서 申叔舟의 5형제 중, 막내인 신말주의 11세손인 旅庵의 家學적 전통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김민수는 旅庵 申景濬을 老論派 實學者라고 밝히고 있으나(김민수, 앞의 1980/1994 책), 이는 아마도 申景濬이 老論系 實力者인 洪鳳漢 등과 함께 『東國文獻備考』(1770)의 편찬에 참여하여 「輿地考」를 담당한 데서 類推한 것으로 보인다. 김완진·정광·장소원도 申景濬을 老論系統의 學者로 分類하고 있는데(김완진 외, 앞의 1999 책) 이는 아마도 김민수의 見解를 踏襲한 것으로 판단된다.

25) 물론 이 당시 語文에 대한 연구는 老論 쪽에서도 이루어졌는데 老論 쪽의 대표적인 語文關係 研究로는 朴斗世의 『三韻補遺』(1702), 朴性源의 『華東正音』(1747), 淡窩 洪啓禧의 『三韻聲彙』(1751) 등으로 이어지는 韻書에 대한 連續의 著書들이 있다. 老論 쪽의 研究 態度가 주로 韻書의 研究에 限定된 데 비해 少論 쪽의 연구는 訓民正音의 기원론으로부터 字母 體系, 화동 한자음의 상호 관계 등 다양한 주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데 차이가 있다.

性理學과 구별되는 陽明學的 심학의 전통이 少論系 학자들로 하여금 사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客觀主義的 絶對性보다는 主觀主義的 相對性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陽明學의 心學的 傳統이 이들 少論系 학자들로 하여금 당시의 中世的 世界 秩序 아래에서도 中國보다는 朝鮮의 입장에서 事物을 바라보게 하고 名分보다는 實利에 焦點을 두게 하였는데,²⁶⁾ 이러한 입장에서 訓民正音과 朝鮮語에 대한 심도 깊은 관심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陽明學의 主觀主義的 態度를 鄭寅普는 다음과 같이 述懷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나는 나지 누가 옳다고 해서 옳다할 것인가. 朱子의 말을 인용도 내 마음과 一揆임일새지 덮어놓고 옳을 리는 없지 아니한가. 이는 자기를 抹殺한 동시에 朱子까지 一毫도 알지못한 것이 아닌가. …… 虛인줄 알라. 저 말로서의 습짐, 저 글로써의 습짐, 이것은 다 虛인줄 알라. 제 마음을 제쳐놓고는 습짐의 標準이 없다.²⁷⁾

陽明學의 두 줄기 중요한 연구 경향은 象數學과 心學의 전통으로 집대성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邵雍의 『皇極經世書』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解例本) 『訓民正音』 내용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邵雍의 『皇極經世書』에서 제시한 語音의 生成 原理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²⁸⁾ 邵雍

26) 김동준도 少論 學派의 성격에 대해, “이중 중세의 어문질서와 少論系의 학적 성형을 상관시켜 볼 때, 눈에 띄는 현상은 조선 후기 少論系에서 국어 [訓民正音]의 음운·문자 관련 논저가 집중적으로 저술되었다는 사실이다. 崔錫鼎, 남극관, 이광사, 洪良浩, 정운용, 이유원 등이 이 계통에 드는 인물들이다. 더불어 정제두, 남구만, 申景濬, 이영익, 윤광수, 강위 등이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바, 조선 후기 국어학사의 주요 음운문자학 저술들이 이들 권역에서 주도되고 있다고 할 만하다.”하고 하였다(김동준, 앞의 2007 논문, 9면).

27) 鄭寅普, 앞의 1955 책, 297면.

28) 심소희는 訓民正音이 바로 이 邵雍의 『皇極經世·성음창화도』에서 제시한 어음의 생성 원리를 바탕으로 창제되었다고 보았으나(심소희, 「정음관의 형성 배경과 계승 및 발전에 대하여」, 『한글』 234, 한글학회, 1996) 문자의 창제와 문자의 해설이 반드시 동일한 논리를 따를 이유는 없다. 그러나 (解例本) 『訓民正音』의 해설과 이 책에서 보이고 있는 訓民正音의 문자 배치의 논리 속에는 邵雍의 『皇極經世·성음창화도』에서 배태된 다양한 논리들이 담겨 있다.

의 『皇極經世書』에 대한 논의는 ‘訓民正音’의 創製 및 (解例本) 『訓民正音』 작성의 과정에 이른바 ‘訓民正音 學派’의 학문적 배경으로 자리 잡았다가, 世祖 이후 訓民正音學의 단절과 함께 소멸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논의는 다른 한편에서 花潭 徐敬德을 기점으로 하여 싹을 피웠다가 멀리 후세의 少論 系統 陽明學 계열의 學者群에 연결되면서 18세기말의 다양한 ‘訓民正音’과 관련한 談論을 이끌어낸 것이다.

본고에서 논의로 삼는 鄭東愈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陽明學을 중심으로 하는 象數學과 聲音文字學에 능통한 학자였던 것이다. 이러한 鄭東愈의 상수학과 성음문자학은 柳僖 『諺文誌』(1820)에 간접적으로 남겨져 있다. 『諺文誌』의 첫 부분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정 선생님께서 저에게 講辨하여 주신 지 몇 개월이 지나니 한 권의 책을 지음이 되어 이름을 諺文誌라 하였다. 初聲 中聲 終聲에 앞서 이전의 韻書의 沿革을 배열하고, 이어서 論斷하고, 끝에 畧字를 배열하였는데, 10,250자를 만들어 세워서 세로와 가로로 줄을 지어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 보매 다 알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여 後進에게 보였더니 잘 아는 사람이 적어 市街에 던져 버리기 십오륙년이 지났더니 그 때문에 잃어버렸다. 혼자서 스스로 슬프고 한스러워하면서 또 오륙년이 지나 지금에 이르렀는데, 四聲通解를 빌려보고 옛날에 적었던 것을 다시 엮고 간혹 새로운 견해로 바꾸어서 다시 한 책을 만들었다.

윗 글의 문맥을 그대로 읽는다면 柳僖의 『諺文誌』는 본래 1800년 전후(이때 鄭東愈의 나이 50중반이고 柳僖의 나이 20중반이다)에 鄭東愈의 講辨을 듣고 작성한 강의안으로 책을 지었던 것인데 後進 중에 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방치해 두었다가 15~6년 전에 잃어버리고, 그로부터 다시 5~6년 뒤에 崔世珍의 『四聲通解』를 보고 옛날의 기억과 『四聲通解』로부터 새로 정리한 내용을 엮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諺文誌』의 논리는 그 기저에 전반적으로 鄭東愈의 견해가 깔려 있으며 새롭게 주장한 내용들에 柳僖 자신의 생각이나 崔世珍의 『四聲通解』에서 참고한 생각들이 덧붙여간 것으로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諺文誌』의 「柳氏校定 聲韻體系」에 정치, 齒頭音 및 ㅁ, ㅂ 등을 표기

체계에 포함하였든지, 종성에 ‘ㄹ, ㅅ’을 인정하였든지 하는 것은 柳僖가 『四聲通解』를 참고하여 덧붙인 것이라면, 그 나머지 부분의 『四聲通解』와 다른 자모체계라든지 특히 象數學에 입각한 자모수 계산법이나 국어 음운현상에 대한 다양한 설명은 鄭東愈의 講辨으로부터 가져온 생각들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諺文誌』에는 실제로 여러 차례 鄭東愈의 견해가 소개되어 있고 그밖에도 원교 이광사, 신재 이영익 등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견해들도 대부분 鄭東愈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같이 訓民正音 연구와 관련하여 이들 少論系 학자들의 계보를 철저히 밝혀내는 일은 국어학사의 주요한 연구 과제이다. 하국 정제두의 문하에 서는 申景濬의 견해를 이어받은 朴慶家 이외에도 이광려(1720~1783)를 거쳐 『晝永編』의 鄭東愈(1744~1783), 『諺文誌』의 柳僖(1773~1837)로 이어지는 계보와 『訓音宗編』의 이사질(1705~1776)을 거쳐 이규상(1727~1799) 등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계보, 그리고 「訓民正音初聲象形圖」의 洪良浩를 거쳐 『華東音源』의 洪義俊(1761~1841)이나 『諺音捷考』의 석범에 이르는 계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²⁹⁾

그리고 이러한 영향 관계의 배경에는 陽明學의 철학에 근거한 주관주의적 태도가 바탕에 깔려 있는데, 訓民正音이나 국어의 언어 현상에 대한 鄭東愈의 여러 가지 주장들은 이러한 철학적 태도를 염두에 두면서 살펴되어야 할 것이다.

29) 申景濬-洪良浩-洪義俊으로 이어지는 訓民正音 象形字 논의에서의 연속성과 마찬가지로 한글 字母字 配列에서도 薰谷 洪義俊(1800)에서 비롯되어 석범(1846), 리봉운(1897), 지석영(1905, 1909), 유길준(1909), 권보상(1909) 등에 이르는 일련의 학문적 계보가 존재한다고 본다. 특히 이 한글 자모자 배열은 현행의 한글 자모자 배열과 동일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 학사적 의의가 있다.

Ⅲ. 『晝永編』에 나타난 國語學史的 意義³⁰⁾

『舊園文錄』(中)에는 鄭東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선생이 돌아가자 諸公이 앞서거니 뒤서가니 돌아가서 맨 뒤로 남은 사람이라고는 겨우 西陂였으니, 이 編이 지금에 이르도록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날 학술이 장차 쇠하여 버렸으니, 어허! 오래 병든 자를 떨쳐 일으키기란 이다지도 어렵구나! 선생의 문집이 없어진 뒤, 正音을 따진 남에게 준 선생의 편지를 찾아내었는데, 그 사람의 字는 稚玉이라 쓰고, 그 사람의 편지가 붙어 있는데, 역시 자기 나름의 說이 있어 선생과 서로 논란한 것이다. 모조리 字形과 音理의 深遠함이라. 그런데 稚玉의 姓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다. 뒤에 李觀察 義駿의 [種書菴集]을 보니, 尹稚玉에게 주는 衣服을 논한 편지가 있고, 注에 그 이름을 光垂라 하였다. 李觀察과 선생이 같은 시대에 벗하였고, 서로 통했으며, 또한 觀察의 편지 속의 말을 더듬건대, 尹公이 故事에 대해 해박한즉 선생이 같이 正音을 따진 尹公이 이분이었음은 분명하다. 尹公의 貫鄉은 坡平이며 判書 東暹의 아들로 벼슬은 牧使에 이르렀다. 여기에 선생의 편지와 아울러 이 編 끝에 덧붙인다. 세상에서 近代 正音學者에 대하여 考論할 사람은 鄭東愈, 柳僖를 논할 때 尹光垂를 빠치지 말기를.”³¹⁾

『舊園文錄』(下)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남겨져 있다.

30) 鄭東愈 『晝永編』에 대한 논의의 先鞭은 홍이섭(「鄭東愈의 『주영편』에 보인 異國語에 就하여」, 『歷史學報』 4, 역사학회, 1953)에서 제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晝永編』에 포르투갈계 표류 상인들에 대한 기록과 함께 남겨진 103단어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晝永編』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 논의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는 포르투갈어를 한글로 전사한 것에 대한 내용이므로 국어학적 논의를 주로 다루는 본고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도수희는 서구어의 표기 108단어를 鄭東愈가 직접 표음한 것처럼 언급하였으나(도수희, 앞의 1993 논문), 이는 사실이 아니며 鄭東愈는 역관들이 언문으로 옮겨 놓은 인명 5단어를 포함한 103단어의 언문 표기를 『晝永編』에 담았을 뿐이다. 도수희의 논문에서 제시한 108단어란 사실 인명 5단어를 포함한 103단어(인명을 빼면 98단어)에 대한 혼동일 것이다.

31) 정양완 역, 「後晝永編序」(1967), 『舊園文錄』 中, 259~262면.

몇 해 전 우리 집안 현동옹이 지은 다른 이에게 주는 정음을 논한 편지를 구했는데, 답장이 붙어 있어서 그가 정음에 대한 학문이 깊음을 알 수 있었다. 대개 현동의 동배일 테지만, 그러나 그 字만 들어 稚玉이라 하였을 뿐이라, 그 사람을 밝히려 하여도 알 길이 없었다. 오랜 뒤에야 이씨 『종서암집』을 통해 윤목사 광수(1753~1814)로 대대로 魯城에 살았으며 할아버지는 팔송 문정공(煌)의 아우 庶尹 燾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³²⁾

그러나 이미 鄭寅普의 이러한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鄭東愈에 대한 논의나 국어학사에서 鄭東愈과 윤광수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위 글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玄同 鄭東愈의 문집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행히 김동준에서 『玄同室遺稿』(2권 2책)가 버클리 아시아문고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책의 권2에 들어있는 「字音往復書 三十段 附答說」을 사진 이미지로 구해보고 이 문답의 상대가 柳僖가 아니라 윤광수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소개한 바 있다.³³⁾ 아마도 鄭寅普에게 언급된 그 편지이거나 그 편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동준에 따르면, 鄭東愈가 訓民正音에 대한 윤광수의 견해에 점잖은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평가된 이 편지의 내용은, 〈四聲通攷〉에 대한 회의적 내용, 『經世正韻』에 대한 비판적 입장 등 『晝永編』(下)에 기록된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소옹의 『황극경세서』와 서역의 梵字를 평생 보았으나 이해할 수 없어서 감히 강론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들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玄同室遺稿』가 국내 학계에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고 있지 못하여 필자는 이 자료를 직접 접하지 못하였다. 아마도 『玄同室遺稿』에 鄭東愈의 언어학적 논의가 더 포함되어 있으리라 추측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본고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鄭東愈의 국어학적 논의는 『晝永編』(上·下)에 그칠 수밖에 없다.

冒頭에서 언급한 것처럼 『晝永編』의 국어학적 논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

32) 정양완 역, 「學生尹公墓表」(1967), 『舊園文錄』 下, 331~327면.

33) 김동준, 앞의 2007 논문.

러 편의 논문이 제시되었지만 그 가운데 단순한 소개의 범위를 넘어서 국어학사적 쟁점을 다루고 있는 것은 權在先의 연구³⁴⁾에서 가장 자세하며, 그 뒤로도 도수희³⁵⁾와 양정호³⁶⁾ 정도가 있을 뿐이다. 본 章에서는 鄭東愈의 『晝永編』에 대하여, 후자의 두 논문에서 언급된 논의를 포함하여 국어학사적 입장에서 쟁점이 될 만한 몇 가지 논의와 국어학사적 의의가 있음에도 그 동안 충분히 언급되지 못한 몇 가지 항목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1. 『晝永編』의 성음학 및 문자학상의 의의

鄭東愈는 『晝永編』의 국어학적 논의의 핵심은 이 책 下卷의 제1단락~9단락까지에 걸쳐 담긴 일련의 聲音 관련 논의들이다. 鄭寅普가 『舊園文錄』에서 “이 編을 지음에, 正音에 대해 밝혀낸 것이 대개 무릇 9조항인데, 柳西陂의 『諺文志』는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언급한 이래, 劉昌均·姜信沆이 이 9가지 항목을 소개하고 이 중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와 평을 덧붙였다.³⁷⁾

〈표 1〉 『國語學史』(劉昌均·姜信沆)에 나타난 『晝永編』에 대한 평가

	『晝永編』의 내용	劉昌均·姜信沆의 평가
제1항/ 제2항	훈민정음(문자)의 우수성	내용 단순 요약
제3항	사성통고에 두 종류가 있다는 설	신빙성 없는 설로 무시
제4항	사성통해에 실린 신숙주의 사성통고 서문 내용 비판	신빙성 없는 설로 무시
제5항	한자운 표기시 종성에 ㅁ ㅂ 사용의 잘못임을 주장	다루지 않음

(다음 면에 계속)

34) 권재선, 앞의 1988 책.

35) 도수희, 앞의 1992·1993 논문.

36) 양정호, 앞의 2004 논문.

37) 劉昌均·姜信沆, 앞의 1961/1974 책.

	『晝永編』의 내용	劉昌均·姜信沆의 평가
제6항	자모는 훈민정음 23자모로 족하다는 것	내용 단순 요약
제7항	서양자모에 관한 것	다루지 않음
제8항	입성의 본질 설명	‘르비입성설’과 ‘사이 ㅅ의 본질’로 나누어 요약
제9항	종성은 초성부용이 옳다는 것	내용 단순 요약

국어학사에서 이후의 대부분의 논의들이 劉昌均·姜信沆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權在先에 와서 이를 황윤석, 柳僖 등의 논의와 함께 ‘자모변증학’으로 묶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자세히 다룬 바 있고 도수희와 양정호는 鄭東愈의 『晝永編』 전체의 국어학적 논의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었다.³⁸⁾

이 가운데, 『晝永編』에 대한 논의 가운데 다음 두어 가지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鄭東愈의 『晝永編』의 주장 중에서 그동안 國語學系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四聲通考』에 두 가지가 있다’는 부분이다. 鄭東愈는 『晝永編』에서 “申叔舟가 편찬한 서책으로서의 『四聲通攷』가 있고 그 이전에 세종이 지은 〈四聲通攷〉가 있었다.”고 하고 “世宗이 ‘訓民正音’을 지은 뒤에 ‘正音’의 자모로 여러 글자를 유취하여 사성의 차례로 배열하고 이름을 〈四聲通攷〉라 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韻書일 뿐이다. 이 책은 본래 세종이 제술한 것으로서 곧 ‘정음’으로 쓴 글이다. 하지만 최세진이 본 〈사성통고〉는 신고령이 저술한 것으로서 ‘정음’으로 쓴 글이 아니다.”³⁹⁾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鄭東愈의 이러한 주장은 이승녕에서 “東國正韻이나 洪武正韻譯訓을 보지 못한 時代의 것이라 架空의 論難이요, 字句에 拘碍된 是非”⁴⁰⁾로 평가되면서 그 가치가 폄훼되었다. 이승녕은 스스로 『四聲通攷』의 編者에 대해

38) 도수희와 양정호는 대략 비슷한 논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도수희가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에서 『晝永編』을 서술하고 있다면, 양정호가 비교적 비판적인 입장에서 『晝永編』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도수희, 앞의 1992·1993 논문; 양정호 앞의 2004 논문 참조.

39) 정양완 역, 『晝永編』 下, 6면.

40) 이승녕, 「洪武正韻譯訓의 研究」, 『진단학보』 20, 진단학회, 1959, 129면.

서 ‘申叔舟?’로 의구심을 표시⁴¹⁾하고서도 세종이 지은 〈四聲通攷〉가 있고 申叔舟가 편찬한 서책으로서의 『四聲通攷』가 있다는 鄭東愈의 주장을 『四聲通攷』를 보지 못한 者의 臆測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승녕은 최세진의 『四聲通解』를 매개로 〈四聲通攷〉와 『洪武正韻譯訓』의 체계가 완전히 일치함을 들어 “鄭東愈의 四聲通攷凡例의 編者意圖의 解釋은 완전히 失手”⁴²⁾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양정호에서도 반복되어 있다.⁴³⁾ 양정호는 鄭東愈 『晝永編』에서 두 가지 〈四聲通攷〉가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世宗이 定한 ‘四聲通攷’를 따로 머리에 붙이고 다시 凡例를 붙여서 指南으로 삼았다.”는 「四聲通攷序」의 내용이 사실은 「洪武正韻譯訓序」(1455)의 내용임을 들어 鄭東愈의 주장이 오류임을 주장하였다. 물론 양정호의 지적처럼 鄭東愈가 「洪武正韻譯訓序」를 「四聲通攷序」로 착각한 것은 틀림없지만 鄭東愈 『晝永編』의 주장 자체에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申叔舟의 「洪武正韻譯訓序」에는 『洪武正韻譯訓』의 앞에 “世宗이 定한 ‘四聲通攷’를 따로 머리에 붙이고 다시 凡例를 붙여서 指南으로 삼았다.”는 구절이 있다. 이때의 ‘四聲通攷’를 申叔舟가 지은 서책으로서의 『四聲通攷』로 본다면, 韻書인 『洪武正韻譯訓』의 앞에 또 다른 韻書인 『四聲通攷』를 붙이고 그 사이에 별도의 ‘凡例(「四聲通攷凡例」)’를 또 붙였다는 것인데 이것이 일반적인 書冊의 출간 과정에 부합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洪武正韻譯訓』은 본래 16권 8책으로 출간된 것인데 현재 1, 2권을 묶은 1책이 남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권두에 申叔舟의 『四聲通攷』가 붙어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남겨진 『洪武正韻譯訓』의 체재를 볼 때, 『洪武正韻譯訓』의 앞에 서책으로서의 『四聲通攷』를 붙여서 출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세진의 「四聲通解序」(1517)에서는 분명히 “세종 장헌대왕께서 …… 『洪武正韻』의 번역을 명하시고 그것이 번잡하여 살피기 어려워 보는

41) 이승녕, 「세종의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특히 운서편찬과 훈민정음제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아세아연구』 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58.

42) 이승녕, 앞의 1958 논문.

43) 양정호, 앞의 2004 논문.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염려하여 고령부원군 申叔舟에게 명하여 類에 따라 글자들을 모아 책 한 권을 만드니 諺文으로 앞에 품을 달고 四聲의 순서대로 配列하고 淸濁을 맞추고 字母에 덧붙이게 하고 ‘四聲通攷’라는 이름을 내리셨다. …… 지금 『通攷』 한 책이 조정에 알려져 있으니 …… ”라고 하여 『四聲通攷』의 書名이 세종에게서 기원한 것이며 그것이 申叔舟에 의해 출간된 독립된 書冊임을 명시하고 있다.

申叔舟의 「洪武正韻譯訓序」의 내용과 최세진의 「四聲通解序」의 내용이 공존하려면 세종이 『洪武正韻譯訓』의 권두에 붙일 간략한 ‘四聲通攷’를 지어 申叔舟 등에게 내렸고 이를 이어 받아 후에 申叔舟가 다시 同名의 書冊인 『四聲通攷』를 출간하였다고 보는 논리가 가능하다. 즉 鄭東愈의 주장처럼 ‘四聲通攷’에 申叔舟가 출간한 것으로 알려진 『四聲通攷』와 世宗이 制定한 〈四聲通攷〉가 存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四聲通攷』는 비록 現存하지는 않지만 『洪武正韻譯訓』(1455)과 同時 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⁴⁴⁾ 따라서 世宗이 定한 것은 서책으로서의 『四聲通攷』일 수 없다. 韻書의 지침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의 〈四聲通攷〉가 별도로 존재해야만 『洪武正韻譯訓』의 指南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송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송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연코 洪武正韻譯訓의 卷頭に 실린 것이 世宗所定의 한글本 韻書가 아니라 ‘世宗所定四聲通攷之文’으로서 보아야 할 것”⁴⁵⁾이라고 주장하고 『洪武正韻譯訓』 1, 2권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치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 (1) 世宗의 文인 “五聲分類를 四聲으로 統一한 新韻書에 대한 序說”의 一文
- (2) 申叔舟의 “洪武正韻序”
- (3) 宋濂의 原本 “洪武正音⁴⁶⁾序”

4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무림, 「洪武正韻譯訓의 音韻論的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0를 참고할 것.

45) 이송녕, 앞의 1958 논문, 132면.

46) ‘正韻’의 잘못된 듯.

- (4) 申叔舟의 編인 “四聲通攷凡例”
- (5) 한글음을 각 字母 밑에 排列한 洪武正韻 三十一字母圖
- (6) 韻目 一覽表

(1)의 설명은 위의 두 기록(「洪武正韻譯訓序」와 「四聲通解序」)의 기록이 갖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거나 이러한 해설이 불가피한 이유는 『洪武正韻譯訓』, 『四聲通攷』, 『四聲通解』를 철저히 중국어 漢字음을 기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鄭東愈의 견해처럼 세종이 제정한 訓民正音 혹은 正音을 東音의 관점에서 普遍 字음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고 申叔舟의 『洪武正韻譯訓』, 『四聲通攷』 이후의 저작들을 華音의 體系化 혹은 現實化를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세종 당시에 이루어진 (解例本)『訓民正音』이나 『東國正韻』과 같은 맥락의 〈四聲通攷〉가 존재했으며 이는 『洪武正韻譯訓』과 같은 계열이자 『四聲通解』의 모델이 되는 『四聲通攷』와는 달랐을 것이라는 추정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申叔舟의 「洪武正韻譯訓序」에서의 ‘世宗所定’을 왕조 시대 “명을 받은 신하가 사업의 공을 임금에게 돌리는 일”로 치부하는 것은 같은 시기 출간된 『東國正韻』의 序文의 다음 내용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 것이다.

우리 주상 전하께서 …… 臣 신숙주, 金宗瑞, 朴彭年, …… 承文院 부교리 金宗瑞에게 명하셔서 한편으로 세속에서 사용하는 것을 채집하고 전적을 살펴 널리 사용되는音を 기본으로 하고 古韻의 反切을 맞추게 하셨습니다. …… 臣等은 재주와 식견이 짧고 학문이 고루하여 분부를 만들지 못하고 고민거리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 이에 四聲에 맞추어 91韻과 23母를 정하고 임금께서 訓民正音을 지어 그音を 바르게 하고 또 質, 勿 등의韻에 대해서 影으로 來를 보충하였다. 이로 인해 俗音이 바르게 되고 舊習이 바로 잡혀 모두 고쳐졌다. 책이 완성되니 『東國正韻』이라는 이름을 내리셨다. 그리고 臣叔舟에게 명하여 序를 짓게 하셨습니다. 臣은 삼가…….47)

47) 「東國正韻序」, “(恭惟)我主上殿下, …… 爰命臣叔舟及守集賢殿直提學臣崔恒, 守直集賢殿臣成三問 臣朴彭年, …… 承文院副校理臣金曾, 旁採俗習, 博考傳籍, 本諸廣用之音, 協之古韻之切, …… 臣等才識淺短, 學問孤陋, 奉承未達, 每煩指顧, …… 於是調以

위 글에서 보듯이 세종과 관련한 사업들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 명령권자와 사업 주체가 분명하게 명시되며 사업의 성과를 군주에게 돌리는 일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⁴⁸⁾ 〈四聲通攷〉에 있어서만 실제로는 申叔舟가 출간한 것을 군주의 몫으로 돌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訓民正音’에 관한 모든 일을 주관하던 世宗이 文字로서의 ‘訓民正音’을 간단한 例儀와 함께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 世宗의 설명과 지휘 하에 書冊으로서의 『訓民正音』이 이루어진 것처럼 世宗이 『洪武正韻』 翻譯의 指針으로서의 간략한 ‘四聲通攷’를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申叔舟가 世宗 死後, 『洪武正韻譯訓』의 出刊 이후에 『四聲通攷』를 집필했다는 鄭東愈의 논리는 이와 같이 世宗을 我東方文字 ‘訓民正音’의 주체로 보는 논리에서 가능한 것이다.⁴⁹⁾

〈四聲通攷〉와 관련하여 鄭東愈의 주장 중,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齒頭音(ㄱ ㅋ ㆁ ㆁ ㆁ)’과 正齒音(ㄷ ㅌ ㄴ ㄴ ㄴ)’의 創案에 대한 歸屬 문제가 있다. 앞의 〈四聲通攷〉와 『四聲通攷』를 구별하는 논리를 갖는 鄭東愈는 齒頭音과 正齒音의 구별이 申叔舟(정확히는 『四聲通攷』)에 근거한 것이며, 世宗이 주도하여 출간한 『訓民正音』이나 『東國正韻』 등 기타 正音 관련된 본래의 글 들에는 이러한 구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승녕은 『洪武正韻譯訓』의 언해 사업이 이미 1447년 경부터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출간 이전인 세종 연간에 이미 齒頭音과 正齒音

四聲, 定爲九十一韻二十三母, 以御製訓民正音定其音. 又於質勿諸韻, 以影補來, 因俗歸正, 舊習譌謬, 至是而悉革矣. 書成, 賜名曰東國正韻, 仍命臣叔舟爲序. 臣…….”.

48) 왕권과 신권이 첨예하게 대립을 이루던 조선 전기의 상황에서 어떤 사업의 주체가 임금이나 신하나 하는 것은 서로의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뚜렷한 장치였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 전기의 이러한 상황을 절대 군주에 의해 국가의 모든 사업이 관장되고 환원되던 유럽식 군주제나 중국식 황제제도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49) 다만, 안병희가 주장한 것처럼 ‘御製’와 ‘御纂’, ‘御定’의 개념 차이가 있어서 임금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것을 ‘御製’라 하고 임금의 명에 따라 신하들이 작성한 것을 ‘御纂’ 혹은 ‘御定’이라고 한 것(안병희, 『『訓民正音』(解例本) 三題』, 『진단학보』 93, 진단학회, 2002)을 고려한다면 『四聲通攷』 출간의 명은 세종에게 있었지만 그 제작의 몫은 분명 申叔舟에게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四聲通攷』의 출간의 몫이 온전히 申叔舟에게 돌아가더라도 齒頭音과 正齒音이 申叔舟의 저작 이후에 등장하고 세종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鄭東愈의 논리에는 큰 흠이 되지 않는다. 세종의 명에 따른 『四聲通攷』는 어쨌든 세조 조에 완성되었고(세종의 명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치두, 정치의 표기는 세조 조 이후에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의 구별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⁵⁰⁾고 보았고, 劉昌均·姜信沆은 齒頭音과 正齒音이 세종 때에는 본래 없었던 것을 申叔舟가 『洪武正韻譯訓』이나 『四聲通攷』의 출간과 함께 제공한 것이라고 보는 鄭東愈의 견해를 아예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치부⁵¹⁾하였다.

그러나 아직 출간되지도 않은 책(『洪武正韻譯訓』)의 내용을 새로 출간할 책(『四聲通攷』)에 덧붙인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널리 알려진 것처럼 齒頭音과 正齒音의 구별을 담고 있는 (國譯本)〈訓民正音〉은 『月印釋譜』(1459)의 권두에 부착된 것으로 세종 당시에 제시된 訓民正音 이본인 (解例本)『訓民正音』이나 (實錄本)〈訓民正音〉 등에는 齒頭音과 正齒音 관련 부분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들 자체에 문제가 있다.

訓民正音의 다른 이본들에 ‘齒頭音, 正齒音’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國譯本)〈訓民正音〉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분분하다.⁵²⁾ 이에 대해 김양진은 『龍飛御天歌』의 國文 歌辭가 이루어진 시기를 批正하는 과정에서 (國譯本)〈訓民正音〉의 국역 시기를 『洪武正韻譯訓』의 출간과 『月印釋譜』(1459.7)의 출간 사이의 어느 시점, 좀더 정확히는 1457년 7월 이후에서 1459년 7월 사이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⁵³⁾

50) 이승녕, 앞의 1958 논문.

51) 劉昌均·姜信沆, 앞의 1961 책.

52) (國譯本)〈訓民正音〉의 制作 時期에 대한 主張은 크게 ①1446년 9월 (解例本)『訓民正音』과 同時 完成說 ② 1447년 7월 『釋譜詳節』關聯說 ③ 1459년 7월 『月印釋譜』關聯說의 세 가지로 압축된다. ①은 이승녕(앞의 1958 논문) 등에서의 주장이고 ②는 김동언(《훈민정음》 국역본의 번역 시기 문제, 『한글』 189, 한글학회, 1985)에서 ③은 姜信沆(「용비어천가의 편찬 경위에 대하여」, 『문리대학보』 6-1, 서울대학교, 1958)에서 적극적으로 주장되었다. 최근 정광(「月印釋譜 編刊 再考」, 『국어사연구』 6, 국어사학회, 2006, 2006)에서는 1450년 무렵에 世宗에 의해 『月印釋譜』가 습득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만약 (국역본)『訓民正音』의 諺解가 世宗祖에 이루어졌다면 바로 이 무렵이 될 가능성이 높다.

53) 김양진, 「『용비어천가』의 훈민정음 주음 연구」, 『역학서와 국어사 연구』, 태학사, 2006, 443~486면. 이러한 견해는 이미 姜信沆(앞의 1958 논문)에서 『龍飛御天歌』의 國文 歌辭와 관련한 논의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양정호(앞의 2004 논문, 80~81면)의 각주 9)에서도 『訓民正音』 한문본에는 치두음과 정치음의 구별이 없지만 언해본에는 그러한 구별이 있음을 들어, (언해본)『訓民正音』의 간행 시기를 『洪武正韻譯訓』 및 『四聲通攷』의 간행 시기(1455)와 『月印釋譜』 간행 시기(1459)의 사이로 추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김양진은 『龍飛御天歌』의 국문 가사가 1457년 7월까지의 아직 마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다음 두 가지를 들어 제시하였다.⁵⁴⁾ 우선 『世祖實錄』 1457년 6월 28일조에서 梁誠之가 바친 『龍飛御天圖』의 序文의 기록 “小臣常侍書筵 東宮邸下出 龍飛御天歌 使臣等定口訣 以備觀覽”에 당시까지 아직 『龍飛御天歌』의 口訣도 마련되어 있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세종·문종·단종·세조 조에 이르기까지 궁중을 중심으로 諺文의 보급이 활성화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 기록은 여전히 『龍飛御天歌』가 읽기 어려운 漢文本으로 남겨져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龍飛御天歌』 국문 가사의 사이시옷 표기가 당시의 다른 저작들과 달리 (國譯本)〈訓民正音〉 및 『月印釋譜』 일부의 표기법이 동궤에 있다는 점이다. 즉 『龍飛御天歌』의 국문 가사와 (國譯本)〈訓民正音〉, 『月印釋譜』는 흔히 동국정운식 표기로 알려진 사이시옷 표기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밖에도 분철 표기의 양상이라든지 기타 표기법에서 이 세 저작물의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이들의 간행이 공통적으로 가능한 시기는 ‘齒頭音, 正齒音’이 처음 나타나는 『洪武正韻譯訓』(1455.7.) 이후라고 보았는데, 그 하한선은 『月印釋譜』가 출간된 것으로 알려진 1459년 7월이 될 것이다.⁵⁵⁾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齒頭音, 正齒音은 세종 당시에 創案된 〈訓民正音〉과 무관하고 1455년 이후 申叔舟에 의해 제시된 것이라는 鄭東愈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申叔舟는 중국 한자음에, 鄭東愈가 우리나라의 현실 한자음에 주안점을 두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적절한 비교가 되지 못한다⁵⁶⁾는 양정호의 평가는 전적으로 타당하나, 세종의 〈訓民正音〉이 본래 申叔舟의 『洪武正韻譯訓』이나 『四聲通考』와 같이 중국 한자음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鄭東愈의 주장에서와 같이 한국 한자음에 근거해서 보편 聲音을 기록하고자 하는 주관주의적 의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오히려 鄭東愈 주장의 개

있다.

54) 김양진, 앞의 2006 논문.

55) 물론 이때의 『월인석보』는 소위 말하는 『月印釋譜』 舊券이 아니라 (新編)『月印釋譜』를 말한다. 전자는 세종에 의해 구성된 것이고 후자는 세조에 의해 편집 출간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광(앞의 2006 논문)의 논의를 참조할 것.

56) 양정호, 앞의 2004 논문.

연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ㄹ, ㅅ’이 받침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한 鄭東愈의 언어 인식도 주목할 만하다. ‘ㅅ, ㄷ’이 변별되던 15, 16세기 동안의 ‘ㅅ’은 불파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마찰음으로 발음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으며 ‘ㄹ’을 받침으로 볼 수 없다는 鄭東愈의 주장 역시 여전히 당시의 음운론적 특성과 관련하여 언어학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⁵⁷⁾ 그 밖에 鄭東愈에서 (解例本) 『訓民正音』의 終聲復用初聲을 국어의 兩音節性和 관련하여 인식하려는 태도 등도 현대 국어 연구자들이 눈여겨 살펴볼 내용들이다.

그러나 鄭東愈의 논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도수희는 鄭東愈의 논의를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⁵⁸⁾ 도수희에서는 ‘귓속/귀쪽’과 ‘아흙섬/아흙섬’에 대한 鄭東愈의 설명에 대해 鄭東愈가 이들을 형태소 사이의 사이시옷으로 보고, 이를 비교적 정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⁵⁹⁾ 그러나 ‘귓속/귀쪽’은 ‘귀’와 ‘속’ 사이에 속격 조사 ‘ㅅ’이 개입하여 나타난 발음상의 특징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흙섬/아흙섬’에서의 ‘ㅅ’은 불파음 ‘ㅆ’ 뒤에서의 단순한 경음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둘은 동일한 현상으로 볼 수 없다. 이는 鄭東愈가 이 두 현상 간의 언어학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수사 + 단위성 의존명사’의 결합에 속격 표지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은 현대 국어뿐 아니라 중세 국어에서도 지켜지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2. 『晝永編』의 語彙史的 意義

鄭東愈에 담긴 國語 語彙史的 意義를 한 마디로 통일하여 언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國語 語彙에 대한 百科辭典的 知識을 배경으로 산만하게 언급된 鄭東愈의 주장 속에는 柳僖의 『諺文誌』에서 언급된 口蓋音化에 대한 관

57) 소신에는 현대 국어의 함경 방언 자료를 통해 중세 국어 혹은 근대 국어에서의 ‘ㄹ’말음이 현대 국어와 달리 어말 폐쇄가 일어나지 않고 개방적 특성을 보여주었을 가능성을 보인 바 있다. 소신에, 「중세 국어 음절말 유음의 음가와 그 변화—방언 자료와 문헌 자료에 근거하여」, 『국어학』 53, 국어학회, 2009.

58) 도수희, 앞의 1992·1993 논문.

59) 도수희, 앞의 1993 논문.

찰과 같이 우리말에 대한 오랜 관심과 정밀한 분석 끝에 맺은 결론들이 여럿 있어서 국어사의 진술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還甲’에 대한 語彙論的 觀察을 들 수 있다. 鄭東愈는, 鄭東愈 當代에 ‘환갑’을 ‘還甲’으로 쓰지만 실제 發音은 仄聲인 ‘還[환]’이 아니라 仄聲, 즉 높은 음인 ‘換[환:]’의 發音으로 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還甲’의 본래 어원이 仄聲인 ‘換甲’임을 『高麗史』의 「忠烈王記」를 인용하여 밝히고 있다.⁶⁰⁾

지금 사람들은 탄생한 해의 甲子가 돌아온 해를 還甲이라고 하고 ‘還’을 仄聲(높은 음)으로 읽는다. 비록 세상의 풍속대로 따라 나도 그렇게 발음하기는 하나 마음에는 일찍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더니 뒤에 『高麗史』의 忠烈王記를 보니 ‘환갑추은의 글(換甲推恩之文)’이라는 것이 있었다. 비로소 ‘還甲’을 仄聲(높은 음)으로 읽는 것은 본래가 ‘換甲’이고 ‘還甲’이 아닌 것을 알았다. 六十년으로 한 차례의 甲子가 다 지나갔으므로 금년부터 다시 새 갑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換甲’, 즉 갑자를 바꾼다고 한 것이어서, 글뜻도 더욱 優雅하여진다.⁶¹⁾

각주 53)의 예에서 보다시피 ‘환갑’의 대응 한자는 고려 때까지, 적어도 『高麗史』가 간행된 1445년까지는 ‘換甲’으로서 그 의미는 “甲年을 바꾸는 해”의 의미였다.⁶²⁾ ‘換甲’이 언제 ‘還甲’으로 바뀌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文獻

60) 『高麗史』 「忠烈王記」에는 ‘換甲’에 대한 기록이 다음 세 군데에서 보인다. 鄭東愈는 이 가운데 첫 번째 韓康 條에 나오는 ‘換甲’의 예를 든 것이다. 『高麗史』 卷31, 世家31 忠烈王4(1296)와 『高麗史』 卷107, 列傳20 韓康 條. 『高麗史』 卷31, 世家31 忠烈王4(1296), “癸巳甲午年 …… 時王年六十一術者有換甲厄年之說故推恩肆宥.”; 『高麗史』 卷31, 世家31 忠烈王4(1296), “丙寅王獵于西郊國師僧獻書曰: ‘殿下換甲之年宜小心修德不可荒于遊畋.’ 王曰: ‘非敢好獵逐虎也.’ 其實憚公主妬悍因獵而出私嬖妾也.”; 『高麗史』 卷107, 列傳20 韓康, “韓康初名璟清州人性酷好浮屠法 …… 忠烈朝知密直司事轉判三司事時兩府議國事皆顧望莫有主者始置宰樞所司存以康爲之後以贊成事致仕又加中贊致仕王召康曰寡人在位已久今年換甲尤愼兢. 卿宜條陳可行事康請.”.

61) 『晝永篇』(1805), “今人稱生年周甲之歲爲還甲而讀之以反聲(仄聲의 잘못, 필자 주) 雖從俗言之而意當未妥後見高麗史忠烈王記有換甲推恩之文始知讀仄聲本爲換甲而非還甲也 六十年爲一甲已盡自今年始訐(始作의 잘못, 필자 주)新甲故言換甲文更近雅.”

上에서 ‘還甲’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 卷44, 丙辰年(1796) 辛卯日(6월 17일) 기사이다.

辛卯일에 上이 右議政 尹蓍東에게 이르기를, “어머님 생신[慶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聖人은 한편 기쁘고 한편 두렵다는 가르침을 내렸는데, 나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다. 모든 의례 절차를 되도록 간략하게 행하여 복을 아끼고 경사를 축복하는 데 一助가 되게 하라. 다만 이 날을 기억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내일 직접 옷감[表裏]을 올리겠다. 世俗에 이른바 還甲·進甲이 이것이다.”⁶³⁾

鄭東愈 당대에 ‘還甲’의 ‘還’은 다른 단어들에 쓰이는 ‘還’에 비해 그 발음이 달랐다. 무엇보다 이때의 ‘還’이 ‘換’과 성조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鄭東愈 시대에 편찬된 韻書인 『奎章全韻』의 기록이다. 『奎章全韻』에서는 ‘換’과 ‘還’을 모두 去聲에 포함시키고 있으면서도 순수하게 거성인 ‘換’과 달리 ‘還’은 平聲인 ‘先’과 ‘소字’임을 밝혀 한국한자음에서 ‘還’이 ‘先’과 通韻字인 平聲字였음을 기록하고 있다.⁶⁴⁾

김양진에서는 이를 본래 전통 漢字音에서는 ‘去聲:平聲’의 대립을 보이던 ‘換:還’의 대립이 『奎章全韻』의 편찬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소멸되면서 ‘換甲>還甲’의 교체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입말에서는 鄭東愈 당대에도 여전히 ‘還甲’에서 ‘還’의 발음은 평성인 다른 ‘還’계 한자어들과 달리 거성으로 실현

62) 김양진은 『高麗史』에 등장하는 국어의 어휘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換甲>還甲’의 발생과 변화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자세한 논의를 김양진, 「〈고려사〉 속의 고려어 연구」, 『국어학』 52, 국어학회, 2008a, 189~219면을 참고하기 바란다.

63) 『朝鮮王朝實錄』 正祖 44卷, 20年(1796 丙辰) 6月 17日(辛卯) 1번째 기사, “辛卯/上謂 右議政尹蓍東曰 慶辰隔日 聖人有一喜一懼之訓 予則以爲懼多於喜 凡諸儀節 務從省約, 爲惜福祝慶之一助 只以此日 不可不知之意 明將親上表裏 俗所謂還甲 進甲是也.”

64) 平聲의 한자음은 현대 국어에 대개 短音으로 남겨지고 去聲인 한자음은 현대 국어에서 대부분 長音으로 남겨졌다. 따라서 현대 국어에서 ‘還’은 短音으로 남겨지고 ‘換’은 長音으로 남겨진 것인데 『규장전운』에서 ‘換’과 ‘還’이 모두 去聲에 포함되었지만 ‘還’의 경우 平聲인 ‘先’과 小字로 쓰일 수 있어서 현대 국어에 짧은 소리로 남겨지게 되었음을 언급한 것이다.

되었음을 鄭東愈가 관찰한 결과로 보았다.⁶⁵⁾

현대의 국어사전들에 ‘換’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환(換)[환:], 환금(換金)[환:금], 환기(換氣)[환:기], 환매(換買)[환:매], 환승(換乘)[환:승], 환유(換喻)[환:유], 환골탈태(換骨奪胎)[환:골탈태]” 등에서처럼 語頭에서 항상 長音으로 실현되고, ‘還’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환도(還都)[환도], 환속(還俗)[환속], 환생(還生)[환생], 환원(還元)[화년], 환향(還鄉)[환향]” 등 모든 單語의 語頭에서 單音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오직 ‘환갑(還甲)[환:갑]’에서만 어두에서 ‘還’이 長音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갑’이 본래 發音이 짧은 ‘還甲’이 아니라 발음이 긴 ‘換甲’에서 기원한 單語임을 言衆들은 생생한 입말 속에서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⁶⁾

다음으로, ‘打’와 관련한 어휘들에 대하여도 鄭東愈의 어휘사적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 資料에 대해서는 이미 도수희와 양정호가 꼼꼼히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⁶⁷⁾ 이들 자료가 가지는 국어 어휘사적 의의를 면밀히 짚은 논의는 없었던 듯하다. 鄭東愈는 “우리말 상말풀이는 字音과 본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중국말과 서로 통하는 것이 있으니 진실로 기이하다. 그런데 그것이 또 중국말의 訛誤로 된 것도, 또 서로 합치하는 것도 있으니 더욱 기이하다.”고 보고 그 예로 중국어에서 불필요하게 더 들어가는 ‘打’자의 용법이 유행한 일을 우리말에서 ‘치다’ 그룹의 단어가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일과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다.

즉 鄭東愈에서는 본래 ‘덩[謫耿反]’의 발음이었던 ‘打’가 ‘타[丁雅反]’의 발음을 지니게 되면서 ‘때리다[考擊]’의 의미에서 멀어져서 온갖 행위를 나타내는 데 쓰이게 된 중국어 ‘打’의 용법을 지적하면서 이를 우리말 ‘치다[때리

65) 김양진, 앞의 2008a 논문.

66) 김양진이 지적한 것(앞의 2008a 논문)처럼 200여년 전 鄭東愈가 『晝永編』에 남겨둔 날카로운 지적을 오늘날의 연구자들이 좀더 일찍 공론화하여 표준어 형성기에 문제를 바로 잡았다면 현대 한자음에서 “환도(還都)[환도], 환속(還俗)[환속], 환생(還生)[환생], 환원(還元)[화년], 환향(還鄉)[환향]” 등과 달리 “환갑(還甲)[환:갑]”으로 실현되는 ‘還’의 발음상 혼동을 좀더 일찍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환갑[換甲]’의 뜻풀이도 “갑년이 새로 돌아오는 해”가 아니라 “갑년이 새로 바뀌는 해”라는 정확한 의미로 바로 잡힐 수 있었을 것이다.

67) 도수희, 앞의 1993 논문; 양정호, 앞의 2004 논문.

다]’가 온갖 행위성 동사의 강세적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현상과 연결하고 있다. 우리말에서 ‘치다’나 ‘때리다(쓰리다)’와 같은 단어가 후치사의 단계를 거쳐 강세접미사로 발달할 수 있다는 논리와 별도로 중국어의 ‘打’가 가지는 용법과 관련하여 우리말 ‘치다’의 다양한 용법을 설명하려 한 것은 현대의 어휘론 연구자들이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측면이다.⁶⁸⁾

‘打’에 대한 鄭東愈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두드려 짜다[搨織] : 打席(자리를 치다), 打帶(띠를 치다), (2) 쏟아 붓다[注瀉] : 打酒(술을 치다), 打醬(장을 치다), (3) 벌려 늘어놓다[弛張] : 打傘(차일을 치다), 打網(그물을 치다), (4) 가축을 기르다[養畜] : 打鷄(닭을 치다), 打犬(개를 치다), (5) 진을 치다 : 打陣(진을 치다), (6) 손님을 받다[] : 打行旅(손을 치다: 旅店을 열다), (7) 물건을 사다 : 打價(값을 치다), (8) 재물을 저축하다 : 打貨(재물을 치다), (9) 회를 꿇다 : 打鱸(회를 치다), (10) 풀을 베다 : 打草(풀을 치다), (11) 나뭇가지를 베어내다 : 打條(가지를 치다), (12) 새나 짐승이 새끼를 낳아 기르다 : 打雛(새끼를 치다), (13) 둥근 것을 깎아서 다면형을 만들다 : 打稜(모서리를 치다), (14) 떨구다 : 拂打(떨치다)⁶⁹⁾, (15) 부딪다 : 碎打(부딪치다), (16) 걸다 : 掛打(걸치다), (17) 핥다 : 舐打(핥치다), (18) 굽다 : 爬打(할치다: 할퀴다?), (19) 버리다 : 捨打(버려치다)

(1~13)에 이르기까지 중국어의 ‘打’가 [때리다]라는 본래의 의미와 무관하게 다양한 행위성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점은 정동유 시대의 우리말에서 ‘치다’가 [때리다]라는 의미와 무관하게 다양한 행위성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과 흡사하다. 이 의미들은 일부 화석화되거나 없어진 의미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현대 국어에까지 남겨진 것들이다. 특히 (14-19)에 이르는 내용들은 우리말의 다양한 합성어 혹은 파생어에 나타나는 ‘치다’를 이때의 ‘치다’와 관련하여 처리한 것으로서 鄭東愈의 탁월한 어휘론적 인식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마도 ‘치다’의 문법화 혹은 재어휘화와 관련하여 주요한 자료가 될

68) 이에 대해서는 근대 이후의 중국어 번역 문체와 관련한 해석도 가능할 것이고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의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어느 쪽 입장에서의 접근이라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69) 을유문고판 번역본 『晝永編』 下(28~30면)에서는 ‘털다, 털치다’로 번역되어 있음.

것이다.

지명에 대한 기록 중에도 ‘菴盆島[늑분도]’와 陰竹의 자래실(陰竹 有 込村) 관련 기사들은 우리말 地名 研究에서 참고할 만한 것이다.

“洪州에 속한 섬에 菴[늑]盆島가 있다. ‘菴盆’이란 ‘슬프다’는 뜻이다. 그런 까닭에 이 섬의 다른 이름은 ‘鳴呼島’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田橫’이 웅거하였던 곳이라고 한다. 아마도 섬 안에 옛사람의 궁궐터가 있기 때문에 후세사람들이 전횡이 아닌가 하고 의심한 것 …… 고려 충렬왕 18년에 스스로 哈丹 下 ‘阿里禿 大王’을 이 섬에 멀리 귀양 보낸 일이 있다. 그런 까닭에 섬에 궁실의 흔적이 있는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⁷⁰⁾

‘늑분도’의 지명 유래가 기원전 3세기 제나라 ‘田橫’의 고사와 관련이 있는지 14세기 고려에 쳐들어온 ‘舍丹’의 手下 ‘阿里禿 大王’과 관련이 있는지 하는 문제와 별도로 ‘*늑브-’라는 단어를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어휘사적으로 매우 의의 있는 일이다. 중세 국어에서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ㅁ/-브-’는 본래 타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접미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⁷¹⁾ 이에 따르면 현대 국어의 ‘느긋다’와 ‘느끼다(〈늑기다〉)’의 어원이 되는 타동사 어간 ‘*늑다[悲感]’(혹은 ‘*늑다’)를 이 단어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⁷²⁾

鄭東愈에서는 字典에 없는 한국 한자들을 여러 차례 보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음죽(지금의 음성) 지역에 있는 ‘자리실[込村]’은 현재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 자래마을’에 대한 기록이다. ‘자래마을’은 일제시대 이전

70) 『晝永編』 下, “洪州屬島有 菴[늑]盆島 菴盆者悲之謂也 故一名鳴呼島 俗稱田橫所據之地 蓋因島中有古人宮闕之基 故後人擬疑於田橫 …… 高麗忠烈王十八年 自遠竄哈丹下阿里禿大王 于此島故島之有宮室之迹 蓋由此也.”

71) 접미사 ‘-ㅁ/-브-’은 ‘낫다, 가련롭다’에서처럼 형용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예외적이고 ‘-ㅁ/-브-’가 결합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어근이 타동사인 경우이다.

72) 김종훈은 이때의 ‘늑’을 ‘늑다[晚]’의 ‘늑’으로 처리하였는데(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집문당, 1992), 그래서 ‘鳴呼島’라는 異名과 ‘슬프다’는 意味 등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어렵다. 본고에서처럼 ‘늑분도’에서의 ‘늑브-’는 ‘느끼다’의 어근이 되는 ‘늑-’에 파생접미사 ‘-브-’가 결합하여 단어를 이룬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까지 ‘自來里’로 독립된 행정 구역이었던 것을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이월면 동성리에 포함되었다. 흔히 ‘自來마을’로 쓰는데 “자래실” 혹은 “자네실” 이라고도 한다. 이곳이 옛날 한양(서울) 다니는 큰 통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 오고가는 길손과 선비들이 동네 느티나무 밑에 와서 쉬어가게 마련이다. 또 여행자들의 站을 대는 목표지이기도 하며 숙박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스스로 찾아온다 하여 스스로자(自)자와 올래(來)자 집실(室)자를 써서 자래실이라 하던 것이 어느덧 자네실이 되었다. ……”⁷³⁾은 민간 어원적 설명도 있었지만 여러 문헌 자료를 통해 볼 때, 이 ‘자리실[社村]’에서의 ‘자리’는 ‘떨나무의 묶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혼독자였음에 틀림없다. 이때 ‘辻’은 鄭東愈의 주장대로 한국식 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⁷³⁾

그 밖에 당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목련을 나타내는 ‘辛夷’를 ‘개나리’로 잘못 알고 있게 된 연원이라든지,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패풍치다’라는 말이 본래 회오리바람을 나타내는 ‘颶風’의 訛誤라든지 하는 사실을 밝힌 것은 국어 어휘사에서 반드시 鄭東愈의 이름과 함께 언급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辛夷’는 현대의 『표준국어대사전』에 “‘개나리’의 잘못”으로 기록되어 있고, ‘패풍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함경도의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지금의 唐津郡 沔川을 ‘樞[音未詳]郡’이라고 했다고 하고 漢字음을 ‘未詳’이라고 두었는데 실제로는 이 單語가 본래 ‘樞郡’의 잘못임을 지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⁷⁴⁾ 『訓蒙字會』를 인용한 ‘樞則 小里眞木[소리참나무]’에 대한 기록에서 이를 ‘줄참나무’와 연결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쉽다고 하겠다. 특히 鄭

73) 이에 대해서는 김종훈이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다만 ‘辻’의 혼독 ‘자리’의 연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김종훈, 앞의 1992 책). 그밖에 鄭東愈에서 제시한 다양한 한국식 한자들은 대부분 김종훈이 정리하여 보고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74) 沔川郡은 본래 백제의 樞郡인데, 통일신라의 경덕왕 때 樞城郡으로 개명하였으며, 1413년(조선 태종 13)에 면천군으로 개칭되었다. 1913년 군이 폐지되고 면천면으로서 당진군에 편입되었다. 김종훈(1992)에서는 『新字典』(1917)과 鮎貝房之進(1931), 『大漢韓辭典』(장삼식 편) 등의 내용을 인용하여 ‘樞郡’의 ‘樞’의 독음을 [추]로 보고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 ‘樞, 樞, 樞’ 등을 모두 이 ‘樞’의 오자인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이 지명이 ‘樞郡-樞城郡’의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는 지명임을 주의하지 못한 것이다. 즉 이때의 ‘樞’는 단순히 ‘樞’에 대한 오자에 불과한 것인데 이미 鄭東愈가 살던 18세기에는 이 한자의 독음이 알려지지 못했고 후대에 ‘추’로 잘못 독음되어 면천군의 옛 이름인 ‘樞郡’이 ‘樞郡’으로 잘못 기록하게 된 것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다.

東愈는 ‘櫟’가 ‘산누에를 치는 나무’라는 사실을 ‘小里眞木[소리춤나무]’에 대한 기록과 연결 짓고 있으면서도 이때의 ‘小里眞木[소리춤나무]’이 ‘줄참나무’에 대한 차자표기일 가능성으로까지 확대해 보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

IV. 결 론

이상에서 18世紀 後半의 學者, 鄭東愈의 『晝永編』(1805~1806)에 나타난 國語學的 研究 成果를 主觀主義的 心學 傳統의 陽明學派, 즉 朝鮮 後期の 少論 學派와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鄭東愈의 학문적 傾向에는, 당시로서는 劃期的이라 할 수 있는 ‘自國主義’의 傾向이 짙게 깔려 있으며 이는 少論 系列 學派의 전체적인 傾向性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8世紀 後半에는 소론 학파를 중심으로 이러한 주관주의적 입장에서 華音(中國 漢字音)과 東音(東國 漢字音)을 구별하여 인식하려는 傾向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鄭東愈와 같이 東音を 나타내는 ‘訓民正音’과 같은 표기 체계를 중심으로 普遍的 言語體系를 再構하려는 입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鄭東愈(1805~1806)의 논의는 특히 文字 體系로서의 ‘訓民正音’의 創製에 대해 創意的인 解釋을 提示하고 있다. 본고는 그 중에서도 鄭東愈가 『晝永編』에서 『四聲通考』를 世宗이 기획한 ‘四聲通考’와 申叔舟에 의해 出刊된 『四聲通考』로 나누고 前者는 世宗이 순수하게 聲音에 입각하여 만든 보편적인 문자 체계로서의 훈민정음과 관련된 것이며 후자는 申叔舟에 의해 자리 잡힌 中國式 發音 表記의 출발점이라고 보았던 점에 주목하였다. 鄭東愈는 이를 통해 齒頭音과 正齒音의 구별이 申叔舟(정확히는 『四聲通攷』)에 근거한 것이며, 世宗이 주도하여 출간한 『訓民正音』이나 『東國正韻』 등 기타 正音 관련된 본래의 글들에는 이러한 구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齒頭音과 正齒音의 구별이 (실록본)『訓民正音』이나 (해례본)『訓民正音』에는 나타나지 않고 『月印釋譜』(1459.7)의 권두에 실린 (언해본)『訓民正音』에서만 나타난다든지 세종 때 이루어진 운서인 『東國正韻』(1446)에서는 보이지 않

가 세조 때 신숙주에 의해 이루어진 『洪武正韻譯訓』(1457.7)에 처음 보인다든지 하는 정황을 통해서 재확인된다. 이와 같이 齒頭音과 正齒音의 歸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 역시 鄭東愈가 굳이 東音을 중심에 두고 普遍的 聲音의 體系를 설정하고자 했던 世宗의 견해를, 華音을 중심에 두고 한자음을 설명하고자 했던 申叔舟 이후의 體系들과 구별하고자 했던 이유와 상관이 있다. 그것은 바로 少論을 중심으로 형성된 양명학적 입장에서의 자국주의, 혹은 주관주의적 세계관과 관련한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연속선상에서 鄭東愈는 『晝永編』에서 당시 조선어의 다양한 언어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鄭東愈는 우리말의 語彙史的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어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還甲’과 ‘換甲’의 語彙史나 중국어 ‘打’와 우리말 ‘치다’의 多義 관계에서의 유사성, 鄭東愈가 당시의 地名들에서 찾아낸 “*늣다 [悲感], *자리[柴]” 등의 어휘소, 鄭東愈에 의해 修正된 ‘辛夷, 颶風’ 등의 어휘 오류 등에서 다양한 語彙論的 認識이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본고는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이러한 논리를 충분히 심도 깊게 펼치지지는 못했다. 少論 學派에 대한 학문적 계보에 대한 연구도 좀더 깊이 있게 진행되었어야 하고 鄭東愈의 국어학적 연구 성과에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또 어떠한 학문적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좀더 꼼꼼히 다루었어야 할 것이다. 平壤 箕子井에서 발굴되었다는 거울 背面에 등글게 기록된 “東王公西周會年益壽民宜子孫吾陽陰眞自有道”에 대한 『晝永編』의 기록도 古代史는 물론 國語史와 관련하여 좀더 정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이 논문이 국어학사에서 鄭東愈와 『晝永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

투고일: 2009.6.30

심사일: 2009.7.30

게재확정일: 2009.8.12

• 참고문헌

- 鄭東愈, 『晝永篇』 上 · 下, 1805~1806; 남만성 역, 을유문화사, 1971
- 姜信沆, 『국어학사』, 보성문화사, 1983
- 권재선, 『국어학 발전사(고전국어편)』, 우골탑, 1988
- 金敏洙, 『新國語學史』(全訂 重版, 초판 1980), 一潮閣, 1994
- 김민수, 『국어정책론』, 고려대출판부, 1973
- 김석득, 『우리말연구사』, 정음문화사, 1983
- 김완진 · 정광 · 장소원, 『國語學史』,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9
-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집문당, 1992
- 劉昌均, 『新考國語學史』, 형설출판사, 1983
- 劉昌均 · 姜信沆 共著, 『國語學史』, 민중서관, 1961(제8판 1974)
- 유창돈, 『諺文誌 註解』, 신구문화사, 1958/1963
- 鄭寅普, 『舊園國學散藁』, 文教社, 1955
- 鄭寅普, 『舊園文錄』, 연세대 출판부, 1967/1983; 정양완 역, 『舊園文錄』 上
中下, 태학사, 2006
- 陳在教, 『耳聾 洪良浩 文學 研究』,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99
- 洪義俊, 『華東音源』, 고려대 도서관, 1801

- 姜信沆, 「용비어천가의 편찬 경위에 대하여」, 『문리대학보』 6-1, 서울대학교,
1958
- 강신항, 「홍희준의 ‘언서훈의설’에 대하여」, 『애산학보』 30, 애산학회, 2004,
3~15면
- 김동언, 「《훈민정음》 국역본의 번역 시기 문제」, 『한글』 189, 한글학회,
1985, 1~23면
- 김동준, 「소론계 학자들의 자국어문 연구활동과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35,
민족문학사학회, 2007, 8~39면
- 김무림, 「洪武正韻譯訓의 音韻論的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0
- 김문갑, 「소옹의 선천학에서 마음의 체용 구조」, 『철학연구』 81, 대한철학회,
2002, 45~64면
- 김성규, 「최석정의 경세정운도설 I」, 『문헌과 해석』 1, 태학사, 1997, 132~
140면
- _____, 「최석정의 경세정운도설 II」, 『문헌과 해석』 2, 태학사, 1998, 84~94면

- 김양진, 「『용비어천가』의 훈민정음 주음 연구」, 『역학서와 국어사 연구』, 태학사, 2006, 443~486면
- _____, 「『고려사』 속의 고려어 연구」, 『국어학』 52, 국어학회, 2008, 189~219면
- _____, 「薰谷 洪義俊의 「諺書訓義說」에 대하여」, 『어문논집』 52, 민족어문학회, 2008, 35~66면
- 김 일, 「『주영편』을 통해 본 정동유의 언어관」, 『중국조선어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03, 22~25면
- 도수희, 「정동유의 언어관」, 『춘강 유재영박사화갑기념논총』, 이회문화사, 1992, 163~172면
- _____, 「정동유의 어휘 · 어원론」, 『語文研究』 24, 어문연구학회, 1993, 461~470면
- 소신애, 「중세 국어 음절말 유음의 음가와 그 변화—방언 자료와 문헌 자료에 근거하여」, 『국어학』 53, 국어학회, 2009, 35~64면
- 심소희, 「정음관의 형성 배경과 계승 및 발전에 대하여」, 『한글』 234, 한글학회, 1996, 191~224면
- 안병희, 「『月印釋譜』의 編刊과 異本」, 『진단학보』 75, 진단학회, 1993, 183~195면
- _____, 「『訓民正音』(解例本) 三題」, 『진단학보』 93, 진단학회, 2002, 173~197면
- 양정호, 「주영편의 국어학사적 기술」, 『애산학보』 30, 애산학회, 2004, 69~97면
- 劉昌均, 「四聲通攷 再構의 實際的 問題」, 『語文學』 28, 한국어문학회, 1973, 99~127면
- 이군선, 「薰谷 洪義俊의 『華東音源』 解題」, 『민족문화연구』 4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5, 323~337면
- _____, 「조선 사인의 언어문자 의식」,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학회, 2007, 35~54면
- 이돈주, 「소옹의 『황극경세성음창화도』와 송대한자음」, 『국어학』 43, 국어학회, 2004, 3~37면
- 이상혁, 「조선후기 훈민정음 연구의 역사적 변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9
- 이승녕, 「세종의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특히 운서편찬과 훈민정음제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아세아연구』 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58,

29~83면

- _____, 「洪武正韻譯訓의 研究」, 『진단학보』 20, 진단학회, 1959, 115~179면
- _____, 「『皇極經世書』의 李朝後期 言語研究에의 影響」, 『진단학보』 31, 진단학회, 1969, 105~130면
- 장소원 · 이병근 · 이선영 · 김동준, 『조선시대 국어학사 자료에 대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한국학 장기기초연구비지원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2003
- 정 광, 「月印釋譜 編刊 再考」, 『국어사연구』 6, 국어사학회, 2006, 19~48면
- 정우택, 「夢巖集의 국어학사상의 의의」, 『애산학보』 16, 애산학회, 1995, 203~224면
- 조성산, 「玄同 鄭東愈(1744~1808)와 『晝永篇』에 관한 연구」, 『韓國人物史 研究』 3, 한국인물사연구소, 2005, 241~270면
- _____,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대청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중화 관념의 형성」, 『한국사연구』 145, 한국사연구회, 67~113면
- 조흥국, 「근대 이전 한국과 동남아시아간 접촉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제 · 지역연구』 8-1, 1999, 23~46면
- 崔玲愛, 「『老乞大諺解』 入聲字의 훈민정음표기 연구」, 『中國語文學論集』 37, 중국어문학연구회, 2006, 83~119면
- 홍이섭, 「鄭東愈의 『주영편』에 보인 異國語에 就하여」, 『歷史學報』 4, 역사학회, 1953, 85~100면

Juyeongpyeon of Jeong-DongYou and Korean Linguistics In later 18th Century

Kim, Ryang-jin

This study aims to research Jeong Dong-yu's *Juyeongpyeon* of its value in Korean linguistics which can be related to the doctrines of Wang Yangming in subjectivistic principle of mind, the school of Soron(少論) in the late 18th Century. Jeong Dong-yu's scholastic trends had 'Nationalism[自國主義]', a very epoch-making thought considering the time, and this was a general tendency of the school of Soron(少論)

The school of Soron(少論) was separately considering to Chinese character sound 'hwa-eum[華音]' and an eastern country's Chinese character sound 'Dong-eum[東音]' and it must seem that Jeong Dong-yu's scholastic trends which reconstruct universal language system on Hunminjeongeum which was writing system of 'Dong-eum[東音]' may come out. Jeong Dong-yu also suggested that differences between Chidueum(dental) and Jeongchieum(retroflex) are based on Sin Suk-ju's Saseongtonggo and that differences don't exist in King Sejong's Hunminjeongeum and Donggukjeongun. This attitude is very cardinal in that it is engaged in 'Nationalism[自國主義]' or subjectivistic values composed by the school of Soron(少論) in the doctrines of Wang Yangming.

And This study was trying to Jeong dong-yu said history of Korean word in Juyeongpheon with subjectivistic attitude. The result is lexical history of Sino-Korean 'hwan-gap[還甲]' and co-relationship of Chinese word '打' and Korean word 'chida[치다]', discovery of ancient Korean '*neut-' in a place name 'neutbun-do' etc..

Key words : *Juyeongpyeon*(晝永編) of Jeong Dong-yu(鄭東愈), the school of Soron(少論) and the doctrines of Wang Yangming, Hunminjeongeum(訓民正音), Saseongtonggo(四聲通考), Chidueum(dental)과 Jeongchieum(retroflex), history of word